

2009년 세계 D램 투자 “자린고비”

아이서플라이, 무려 63% 축소 ... 삼성전자도 2007년 투자액 밀돌 것

2009년 세계 D램 반도체 투자비(CAPEX)가 2008년에 비해 60%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.

미국 시장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(iSuppli)에 따르면, 2009년 세계 D램 투자비용이 41억1000만달러에 그쳐 전년대비 63%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.

아이서플라이 관계자는 “2009년 세계 D램 투자액은 선도기업인 삼성전자의 2007년 투자액인 48억달러를 밀돌 것”이라고 전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2/02>